

##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 운 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wsbaek@cdi.re.kr](mailto:wsbaek@cdi.re.kr))

### 목 차

< 요약 >

- I. 시작하며
- II. 중소기업의 개념과 국민경제에서의 역할
- III. 충남중소제조업의 성장과 변화
- IV. 충남중소제조업의 지역적 특성
- V. 정책적 시사점

## 《요 약》

- 충남은 최근 10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전국 최고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산업총량에 있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함
- 이러한 충남의 경제성장은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서 기인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중소기업은 충남제조업의 사업체 98.5%, 고용의 6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5.2%의 고용과 6.9%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충남의 중소기업은 4대 전략산업 중 전자정보기기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가공조립형산업으로 주요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경로 의존적 발전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도내 서북부권 지역 이외 상대적으로 저발달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용 창출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도내 지역불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발전을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시장의 실패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지역의 불균형 및 난개발을 초래하게 됨으로 이러한 산업의 확대와 확산을 고려한 지역의 계획적인 산업입지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충남 산업의 성장과 변화,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지분포, 성장 등의 실태분석 결과로
  - 첫째, 충남의 중소기업은 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국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둘째, 전체적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 등의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과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셋째,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는 북부권인 천안·아산의 기존 집적지 확대와 함께 서산·당진 등의 서북부지역, 예산·홍성 등의 남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경로 의존적 발전 성향을 보임
  - 넷째, 중소기업의 계획입지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규계획입지 이외 기존 중소기업들의 집단화 등의 계획적인 입지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결과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먼저 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동종, 또는 이업종 교류를 활성화시켜 산업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중소기업 중 특히 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입지, 정보제공 등 기업활동의 전반을 포함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과 시책개발이 필요함

## I. 시작하며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국가와 지역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도 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과거 수십년 간 기간산업의 육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정책은 다소 미비했다고 말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 역할을 하며,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제품과 전문화된 부품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내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활발한 산업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기업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이 발달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를 가져옴
- 현재 충남은 지난 10년간 경제 총량규모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적으로 산업이 집적된 북부권의 성장과 기타 지역의 상대적 저성장으로 인해 지역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지금은 서북부지역의 산업집적으로부터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상대적 저성장지역의 산업성장에 주목할 단계에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지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 성장하고 쇠퇴하는 산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 지역 산업정책으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

## II. 중소기업의 개념과 국민경제에서의 역할

### 1.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는 1960년대 부터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1983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범위 특별업종제도를 도입한 이후 업계의 요구사항을 중소기업 범위에 반영해 온 결과, 중소기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sup>1)</sup>

---

1)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헌법 제123조 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보호육성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신용보증, 창업 등 중소기업전반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의에 대한 양적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질적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나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마샬(Marshall, 1980) 이래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창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탈산업화로 제조업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소기업의 창업이 증대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 됨
-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업집적형성과 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 이외 전체적인 국민경제 속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효율성이 낮고 국민경제의 의존도도 높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이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경쟁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음

- 즉, 중소기업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대기업을 발생시키는 토대임
- 또한, 정치사회 안정의 근간인 고용기회 제공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완화할 수 있는 수단임
- 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분업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형성에 있어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Ⅲ. 충남중소제조업의 성장과 변화

#### 1. 충남 경제와 산업구조 변화

##### ■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로의 급속한 전환

- 충남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의 성숙과 더불어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영향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왔음
- 이로 인해 충남은 지난 10년간 지역경제의 총량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경제성장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에 있어 1995년 20조 9,415억에서 2005년 현재 41조 2,809억 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7.02% 증가로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GRDP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1995년 1,088만원에서 2005년 현재 1,542만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3.55%씩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1,185만원에서 2,185만원으로 동 기간 6.3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경제 총량지표에 의하면 충남경제는 최근 들어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 충남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44.5%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연평균 12.41%, 부가가치증가율 연평균 12.4%로 전국평균증가율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표1〉 산업별 총부가가치액 현황

(2000=100)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95~’05)
		(백만원)	(구성비)	(백만원)	(구성비)	(백만원)	(구성비)	
전국	GDP	485,493,634	100.0%	577,970,942	100.0%	729,240,586	100.0%	4.2%
	농림어업	26,558,668	5.5%	27,674,072	4.8%	27,414,625	3.8%	0.6%
	제조업	126,479,780	26.1%	167,876,541	29.1%	228,245,060	31.3%	6.1%
	서비스업	332,455,186	68.5%	381,689,303	66.0%	473,580,901	64.9%	3.6%
충남	GRDP	20,941,551	100.0%	28,962,820	100.0%	41,280,942	100.0%	7.0%
	농림어업	3,105,238	14.8%	3,704,190	12.8%	3,646,774	8.8%	1.6%
	제조업	5,719,167	27.3%	11,168,006	38.6%	18,364,766	44.5%	12.4%
	서비스업	12,117,145	57.9%	14,090,624	48.7%	19,269,402	46.7%	4.8%

자료 : 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통계청 (<http://kosis.nso.or.kr>).



## 2.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 ■ 제조업 고용의 68%,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6.9% 창출

-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체에 있어 충남의 중소기업은 3,873개 업체 112,88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59개 업체 54,009명이 종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의 98.5%, 종사자수의 67.4% 매출액과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각각 39.0%와 43.5% 창출
- 충남의 중소기업이 도내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국적으로는 6.9%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음
  - 전국 대비 충남의 중소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수 3.32%, 종사자수 5.16%를 점유하고 있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각각 6.94%와 6.85%창출
-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고용의 6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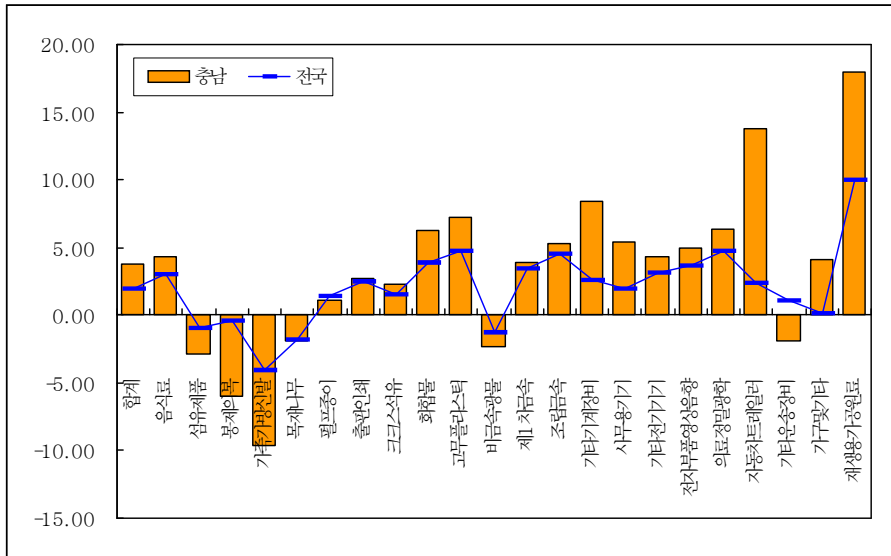
〈표2〉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황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합 계	3,932	166,890	74,855,820	25,402,932	100.0	100.0	100.0	100.0
중소 기업	5 ~ 9	1,375	8,942	1,587,508	34.97	5.36	2.12	2.07
	10 ~ 19	1,039	14,063	2,697,165	26.42	8.43	3.60	4.01
	20 ~ 49	895	27,766	5,905,072	22.76	16.64	7.89	8.41
	50 ~ 99	314	21,952	6,730,871	7.99	13.15	8.99	10.65
	100 ~ 199	191	26,042	7,856,672	4.86	15.60	10.50	11.54
	200 ~ 299	59	14,116	4,423,732	1.50	8.46	5.91	6.81
대기업	300명이상	59	54,009	45,654,800	1.50	32.36	60.99	5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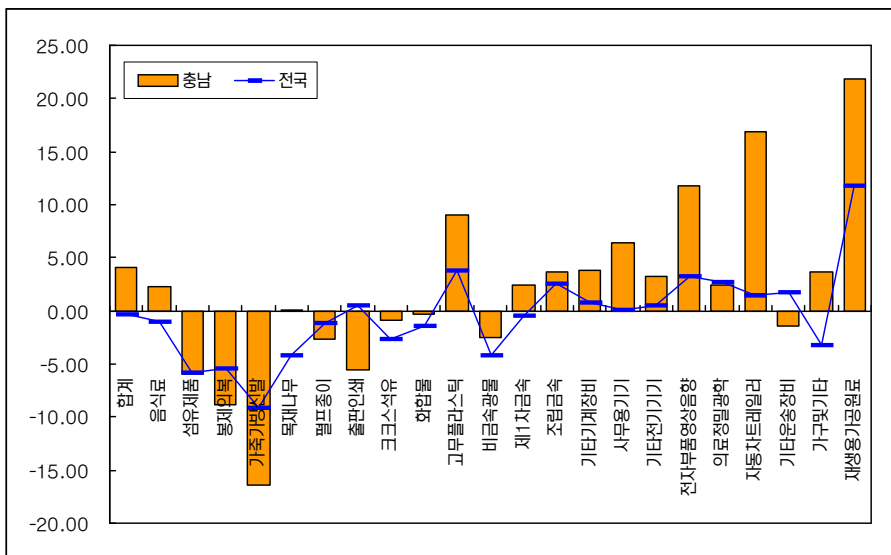
자료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 충남 4대 전략산업 중심의 급속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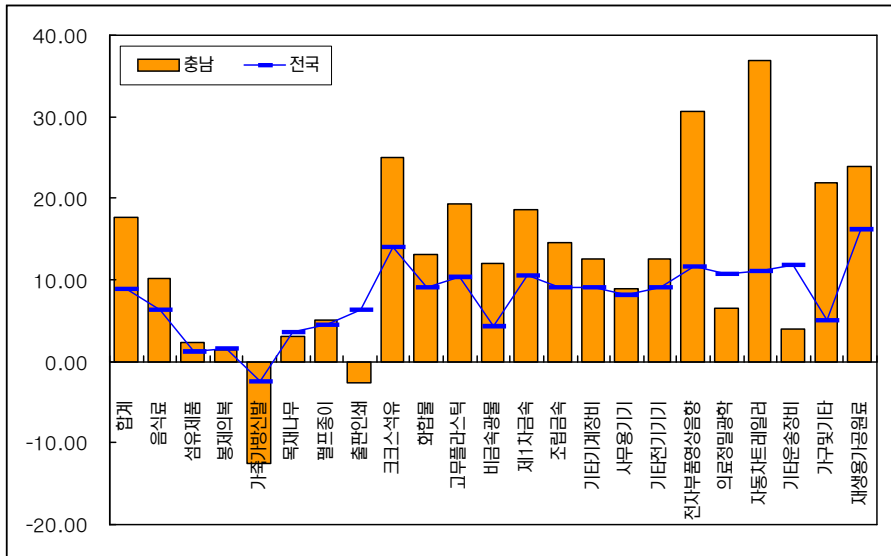
- 충남 제조업의 성장은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인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 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전국대비 충남 산업의 비중과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충남은 최근 들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지역 내 산업적 기반이 적고, 생산기반이 열악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내 산업 비중이 큰 비금속광물제품은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증가가 확대되어 규모화의 진전이 나타남
- 생산액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30%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두 산업은 전국적으로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충남 내에서는 산업이 집적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가가치성장 측면에서도 역시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이 높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역시 연평균 성장률 29.44%를 나타내고 있고, 종사자수의 높은 증가로 점차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도 26.45%의 높은 부가가치 증가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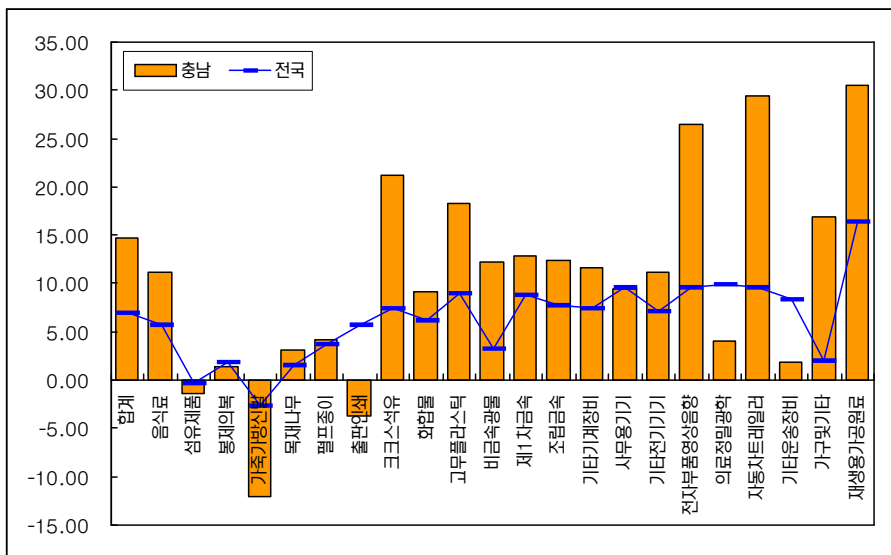
[그림1] 업종별 사업체수 성장률 비교(1995-2005)



[그림2] 업종별 종사자수 성장률 비교(1995-2005)



[그림3] 업종별 생산액 성장률 비교(1995-2005)



[그림4] 업종별 부가가치 성장률 비교(1995-2005)

## ■ 충남 중소기업의 특화업종과 경쟁력 변화

- 산업의 분석에 있어 특화되어 있다는 것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다소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이 전국 대비 상대적 비중이 많다는 것,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단위당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에 있어서는 특화업종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에 대한 입지상(LQ:Location Quotient)<sup>2)</sup>을 종합하여 지수를 산출했고, 경쟁력지수는 업체당 생산액,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업체당 부가가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등 4개의 변수를 각각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부가가치 등에 대한 입지상을 종합한 특화업종을 살펴보면,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의 2개 업종이 전 기간 특화업종을 유지하고 있음
- 1993년 이후에 특화된 업종으로 새롭게 도입된 후 최근까지 특화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의료·정밀기기·시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4개 업종임
- 종합하면, 충남의 중소기업의 특화업종 중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지속적으로 특화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 전자기기·전기변환장치,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4개 업종은 새로운 비교우위업종으로 나타나 산업 내 가공조립형 산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음

2) 특정 지역의 특정산업(업종)과 전국의 특정산업(업종)간의 구조를 비교하여 특정지역의 산업(업종)이 전국에 비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지를 분석

〈표3〉 중소기업의 특화 업종변화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음·식료품	○	○	○	○	○	○	○	○	○	○	○
섬유제품											
봉제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	○	○	○	○	○	○	○		○	
출판·인쇄·기록매체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	●	●	●							
화합물·화학제품		○	○						○	○	○
고무·플라스틱 제품		○	○	○	○	○	○	○	○	○	○
비금속광물 제품	●	○	○	○	○	○	○	○	○	○	○
제1차 금속산업			○	○							
조립금속제품				○	○	○					
기타 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		○	●	○	○	○	○			○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	○	○			○	○	○	○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	○	○	○	○		○		○	○
자동차·트레일러		○	○		○		○	○	○	●	○
기타 운송장비											
가구·기타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업종수	6	9	11	11	8	7	7	8	6	8	8

주: ○ 하위그룹 ● 중위그룹 ● 상위그룹

자료 : 제조업 지역·업종별 경쟁력 및 경영여건 비교·분석(II), 중소기업연구원, 2005

- 충남중소제조업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음
- 2003년 기준으로 전체 22개 제조업종 중 17개 업종이 경쟁력 비교우위에 있으며, 경쟁력 비교우위 수준이 높은 업종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

〈표4〉 충남 중소기업의 경쟁력 비교우위 업종 변화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음·식료품	○	○	○	○	○	○	○	○		○	○
섬유제품		○	●	○	○	○	○	○	○	○	○
봉제의복·모피제품				○	○		○		○		
가죽·가방·신발	○	●	●	○	○		○	○	○	●	●
목재·나무제품	○	○	○	○	○	●	●	●	●	●	●
펄프·종이·종이제품	○		○	○	○	○	●	○	○	○	○
출판·인쇄·기록매체	○		○	○	○	○	○	○	○	○	●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	●	●	●							
화합물·화학제품										○	
고무·플라스틱 제품	○	○	○	○	○	○	○	○	○	●	○
비금속광물 제품											
제1차 금속산업		○	○	●		○		●		●	○
조립금속제품	○	○	○	○	○		○	○	○	○	○
기타 기계·장비		○	○	○	○	○	○	○	○	○	○
컴퓨터·사무용기기	●		●	●	●	●	●	●	○	●	●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	○	●	○	○	○	○	○	○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	○	○	○	○	○	○		○	○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	●	●	●	●	○	○	●	●	●
자동차·트레일러	○	○	○				○	○	○	○	○
기타 운송장비		●	●	●	○	●			○	○	●
가구·기타제조업						○	●	○	○	○	○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	○	○	○	○						
업종수	13	15	18	18	16	15	16	16	15	18	17

주: ○ 하위그룹 ● 중위그룹 ● 상위그룹

자료: 제조업 지역·업종별 경쟁력 및 경영여건 비교·분석(II), 중소기업연구원, 2005

## IV. 충남중소제조업의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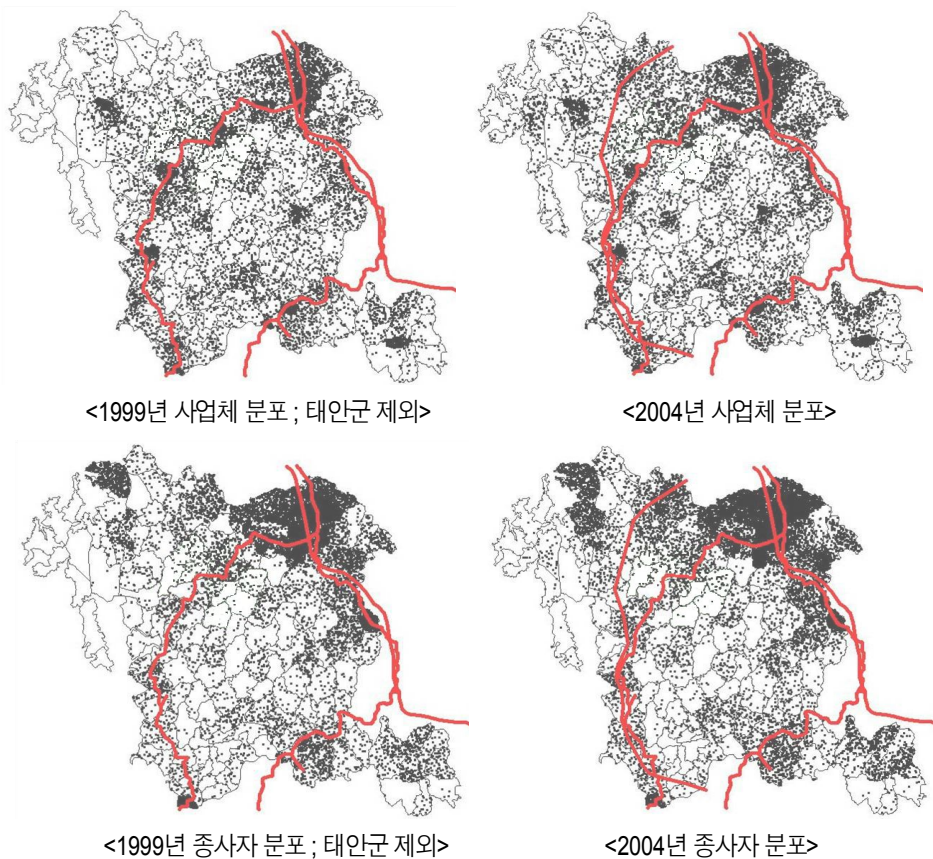
### 1. 중소기업의 지역적 분포 실태

#### ■ 서북부권과 경부축 중심으로 하는 경로의존적 기업집적

- 충남의 중소기업 분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당진, 서산까지의 서북부권과 경부축을 따라 연기·논산지역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천안(34.33%)과 아산(17.19%)이 충남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부축을 따라 계룡·논산(계룡7.60%; 논산7.35%), 연기(6.94%), 금산(5.77%) 순으로 집적
-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의 4개 권역별로 구분하면 북부권에 59.82%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해안권 7.30%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분포에 있어 상위 5개 시·군은 하위 5개 시·군의 8배에 해당돼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심함
- 충남 16개 시·군의 최근 10년간의 중소기업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아산시와 서산시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태안군과 내륙지역에 위치한 부여군, 공주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산시와 아산시로 1995년 대비 사업체와 종사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북부권 4개 시·군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입지규제의 영향과 표준화된 제품생산 설비의 자연적인 지방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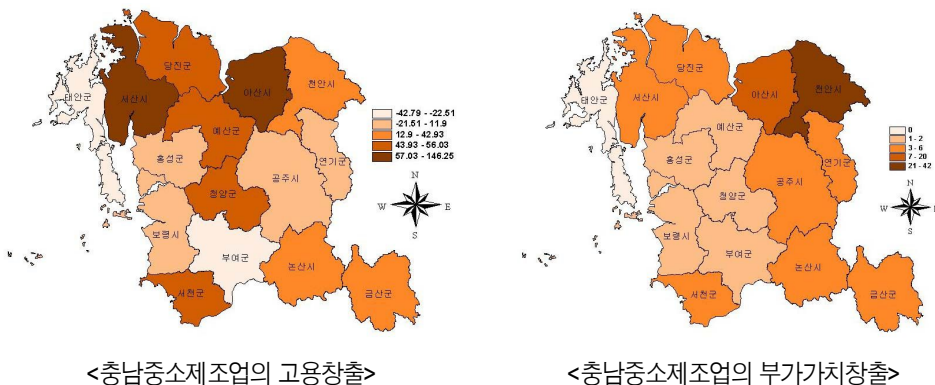


[그림5] 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 변화

## ■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역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 지역의 고용창출은 기업이 외연적 확장과 기업의 유치에 큰 영향을 받음

-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서 기업의 확장이나 유치 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성장하면 직접적인 고용증가와 산업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해 지역의 인구는 증가
- 먼저,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아산시(12.11%)와 연기군(10.1%)이 가장 많은 집중을 보이고 있으며, 천안시와 금산군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비율에 있어서도 아산시가 충남도 내 가장 높은 22.1%를 점유,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가 도내에서 가장 높음
-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비율이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 및 산업화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인구대비 종사자비율 변화는 지역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지역의 고용창출은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비율의 변화율로 볼 수 있음<sup>3)</sup>
- [그림6]에서 고용창출이 내륙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산업화의 증대로 지역 산업활동이 점차 북부권 이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6] 충남중소제조업의 지역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3) 박용규·이언오(2005)는 해당지역의 인구대비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 증가분으로 제조업 해당지역에 미치는 고용창출을 설명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천안지역이 42.0%, 아산지역이 20.4%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은 대부분 5%미만에 불과함
  - 대기업을 포함했을 경우는 충남 제조업 전체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천안·아산·서산지역이 78.5%, 기타 지역은 대부분 2% 안팎으로 나타남
- 이러한 중소기업의 분포와 변화율, 부가가치 창출 등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제조업 분포는 천안, 아산 및 연기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권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점차 천안·아산지역에서 서부에 인접하고 있는 서산·당진, 예산·홍성 등의 남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분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입지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단계이며,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로의존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는 경부축과 북부권 지역에서 비북부권과 서해안권 지역으로 제조업의 분포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공주, 부여 등의 내륙권은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음

## 2. 중소기업의 계획적 입지 실태

- 기업의 입지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의 유치 등에 있어 지자체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있음
- 현재 충남의 공장용지 면적은 2005년 현재 74,754.3천㎡로 1995년의 35,189.1천㎡에 비해 연평균 7.8%씩 증가하였음
- 산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의 경우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은 연 8.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북부권 공장용지 면적은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64.8%에서 2005년 65.8%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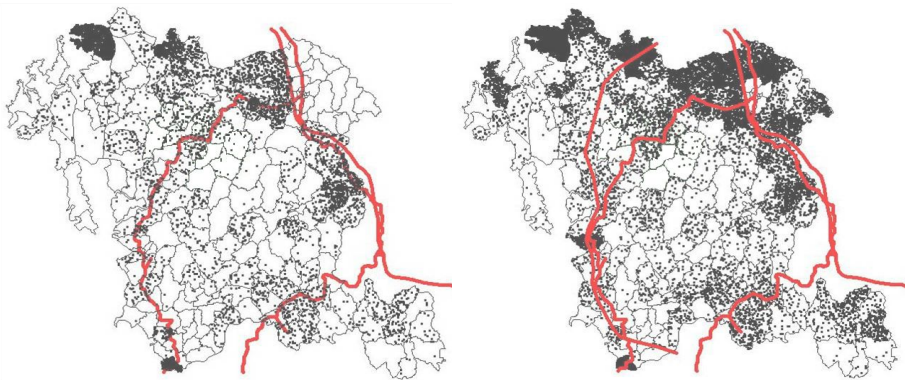
〈표5〉 도내 각 권역별 공장용지 현황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95-’05)
	(천㎡)	(비율)	(천㎡)	(비율)	(천㎡)	(비율)	
북부권	22,801.3	64.8%	37,342.9	66.4%	49,189.4	65.8%	8.0%
서해안권	2,250.8	6.4%	4,687.4	8.3%	6,385.0	8.5%	11.0%
내륙권	6,688.3	19.0%	9,138.7	16.3%	11,578.0	15.5%	5.6%
금강권	3,448.7	9.8%	5,062.3	9.0%	7,601.8	10.2%	8.2%
총 남	35,189.1	100.0%	56,231.3	100.0%	74,754.3	100.0%	7.8%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 그러나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공장용지 면적의 증가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도 공장용지 면적의 증가율은 1995년~2000년에 연 9.8%에서 2000년~2005년에 연 5.9%로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의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은 북부권이 연 10.4%에서 5.7%, 서해안권이 연 15.8%에서 6.4%, 내륙권이 연 6.4%에서 4.8%, 금강권이 연 8.0%에서 8.5% 증가하여 금강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감소



[그림7] 공장용지 변화 (1995-2005)

- 충남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의 촉진 차원에서 산업기지 및 공단을 활발히 조성함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충남의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28%로 1,18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임
-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의 분포는 국가산단에 111개 업체, 지방산단에 289개 업체, 농공단지에 75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5인 이상으로 비교적 회사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의 63.6%, 종사자의 7.9%에 해당하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은 사실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

〈표6〉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제조업체수

구분	제조업체수	산업단지외	산업단지				계획입지 기업비율
			소 계	국가산업	지방산업	농공단지	
천안시	1,386	1,081	305(3)	39	176(3)	90	22.0
공주시	206	153	53			53	25.7
보령시	134	57	77(2)	(1)	(1)	77	57.5
아산시	706	620	86(5)		36(4)	50(1)	12.2
서산시	154	115	39(12)	(1)	7(7)	32(4)	25.3
논산(계룡)시	306	230	76(1)		41	35(1)	24.8
금산군	269	222	47(1)		(1)	47	17.5
연기군	304	220	84(7)		55(7)	29	27.6
부여군	89	61	28			28	31.5
서천군	151	88	63			63	41.7
청양군	55	11	44(1)			44(1)	80.0
홍성군	93	30	63(1)			63(1)	67.7
예산군	136	74	62			62	45.6
태안군	22	3	19			19	86.4
당진군	216	80	136(5)	72(4)		64(1)	63.0
합계	4,227	3,045	1182(38)	111(6)	315(23)	756(9)	28.0

자료 : 2005년 4/4분기 산업단지 현황, 충청남도.

주 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5)의 중소기업현황을 이용하여 재작성.

2) 산업단지현황 중 ( )는 대기업 업체수임.

- 위의 <표6>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계획입지된 공업단지보다는 대부분 도시 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또는 기타 지역에 개별입지 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 전체적으로 기업의 신규 유치 및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총 74,891천m<sup>2</sup>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낙후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산업단지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표 7〉 산업단지 조성계획 (2006~2020)

구 분	기조성면적 (2006년 1/4분기 현재)	추가조성규모 (2006년~2020년)
합계 (천㎡)	51,149	74,891

- 이는 산업육성에 있어 무분별한 개별입지 확대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산업집적을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업종 간 연계 강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배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조화되는 다기능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최근의 연구결과<sup>4)</sup>에 의하면 계획입지의 경우 64.7%가 입지환경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개별입지 기업의 경우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6.3%에 불과해 계획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각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 입주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4)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2005.

## V.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변화, 입지, 특성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충남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고용의 68%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의 고용 창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 전국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기업육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육성의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임
- 둘째, 충남의 중소기업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음향기기, 통신장비, 전자기기, 전기변환장치 등의 가공조립형 산업이 큰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가공조립형산업은 일반적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계열화가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협력이 필요해 집적하게 되는 산업임
- 이러한 지역 내 기업 간 연계체계와 기업 활동의 지역화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확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집적화와 외부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지역 내 기업 간 생산 및 판매 연계체계의 구축은 제조업 입지여건으로써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또한 현재 집중된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 동종 및 이업종 산업교류를 통해 밸류체인완결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산업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임
- 셋째, 충남 중소기업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는 북부권의 기존 천안·아산의 확대보다는 서산, 당진 등의 서북부지역, 예산, 홍성 등의 남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기업의 공간적 확대는 고속도로 등을 따라 경로 의존적인 확산형태를 보이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충남의 기업 입지공급 정책은 산업단지와 집단화 시설의 공급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각종 유형의 입지공급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현실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중소기업의 입지공급 정책은 중기업과 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규모 이상 기업의 입지정책을 소기업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거나 또는 소기업을 입지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최근 들어 중소기업전용단지와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입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넷째, 중소기업의 계획입지 입주율이 28%에 불과하며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계획입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규계획입지 이외 기존 중소기업들의 집단화 등의 계획적인 입지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입지는 기존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무조건적인 개별입지의 규제는 오히려 불법공장의 양산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
- 또한, 개별입지가 집단화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반드시 문제점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개별입지의 선정이 집단화 시설 내 입지의 곤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향후의 중소기업 입지 정책은 중소기업집단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입지 공간의 개발, 도시지향형 업종이면서 고층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업종의 기업들을 위한 도시 내 미니 산업단지의 건설, 대도시 교외지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입지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함

백운성, wsbaek@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3

## ◆ 참 고 자 료 ◆

- 권영섭·김동주,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김갑성외,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 제18권 제1호.
- 건설교통부, 2005, 산업입지개편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정보 164 pp8-20, 국토연구원.
- 김영수, 2002,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박영철·장철순·류승한, 2002, 공업배치기본계획 : 산업입지의 수요전망 및 공급방안 부문, 산업연구원.
- 박영철외, 2003,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박용규, 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서정대, 2005, 제조업 지역·업종별 경쟁력 및 경영여건 비교·분석(II), 중소기업연구원.
- 이윤·구자형, 2005, 한국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추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1909~2003, 한국경제연구원.
-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기본계획, 충청남도
- \_\_\_\_\_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2007, 충남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2단계).
- 한표환,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국토정보 175 pp16-23, 국토연구원.